

북구, 한강 작가 작품 기반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한강 작가 작품 탐구로 주민 인문학 소양 함양

『소년이 온다』 배경지 탐방 등 5회 교육...14일까지 선착순 모집



2026 길 위의 인문학
길 위의 오월
문학으로 걷다

참여자 모집
모집기간: 2026. 7. 29.(수) ~ 8. 14.(금) 18시
모집대상: 만19세 이상 성인 25명 (선착순)
신청방법: QR코드 접속 또는 홈페이지 내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lly7868@korea.kr)
참가비용: 무료
신청기간: 8. 21.(금)까지 개별통보

사업내용
교육기간: 2026. 8. 27. ~ 9. 19.(5회)
(강좌) 매주 목요일 19시~21시
(탐방) 토요일 14시~18시
운영장소: 운암생활문화센터(북문대로98번길 20)
한강 작가 작품 탐구 등(4회) 및 문학 탐방(1회)
장소: 운암생활문화센터(북문대로98번길 20)
장소: 운암생활문화센터(북문대로98번길 20)
문의: 북구청 문화예술과 062-410-8207

1차 (강의)
문학이 제기한 근본적인 질문들
일시 8월 27일(목) 19시~21시
장소 운암생활문화센터 3층 다목적홀

2차 (강의)
문학은 어떻게 기억을 기록하는가
일시 9월 3일(목) 19시~21시
장소 운암생활문화센터 3층 다목적홀

3차 (강의)
기억과 연대- '인간과 공동체의 윤리'
일시 9월 10일(목) 19시~21시
장소 운암생활문화센터 3층 다목적홀

4차 (강의)
문학을 읽고 쓰는 일
일시 9월 17일(목) 19시~21시
장소 운암생활문화센터 3층 다목적홀

5차 (탐방)
'소년이 온다' 배경지의 기억을 걷다
일시 9월 19일(토) 14시~18시
장소 『소년이 온다』 배경지 등
(전남대·효동초·옛전남도청·전일빌딩245동)

※ 신청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강의개최서 참고 바람

본 제작물은 2026 길 위의 인문학-지혜하고 문명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 한국문화재단 후원 (주)한국문화재단

길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포스터

/광주 북구청 제공

남구,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한다

온라인 마케팅부터 디지털 상거래까지 제공

5~12일까지 접수, 관내 사업장 8개소 모집

전남광주통합특례시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남구는 4일 "관내 소상공인의 온라인 마케팅 경쟁력 제고 및 디지털 상거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콘텐츠 제공을 위해 오는 5일부터 12일까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급변하는 소비 환경에 대응해 관내 소상공인들이 온라인을 활용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

다. 특히 디지털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온라인 마케팅과 고객의 구매 욕구를 끌어 올리는 디지털 상거래 관련 내용을 제공해 매출 증대와 지속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남구는 관내 골목형 상점가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면서, SNS와 블로그 등 자체 온라인 홍보 매체를 운영하면서 1년에 2회 이상 홍보 이력 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은 뒤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총 8곳을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네이버 플레이스 계정 활성화 및 블로그 리뷰 지원과 SNS 채널 콘텐츠 및 숏폼

제작 등 사업 특성에 맞춰 맞춤형 온라인 마케팅 및 디지털 상거래 콘텐츠를 지원한다.

온라인 중심으로 소비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디지털 플랫폼 적극 활용과 오프라인 매장 중심의 영업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구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은 이제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경쟁력이 되고 있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남구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지역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고 온라인 중심의 경영 환경 조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참여 업체의 사업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하며 맞춤형 상담과 컨설팅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자생력 확보를 이끌어내는 방침이다. 또한 우수 사례를 발굴해 지역 소상공인들과 공유하고 디지털 전환 성공 모델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온라인 홍보 역량을 강화해 지역 상권의 경쟁력도 함께 높여 나갈 예정이다. 남구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판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 참여 등 자세한 내용은 남구청 홈페이지(www.namgu.gwangju.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민생경제과(☎ 607-2713)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수 기자



구청 소식 홍보단 간담회 사진

/광주 남구청 제공

